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시편 51:1~19)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했어도 그 행위는 피해 당사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해된 사람에게 살인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폭행을 저질렀어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짓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가 타인에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죗값을 치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향한 일종의 사과에 불과합니다. 감옥살이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용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는 예외 없이 사람에게서 열매 맺게 됩니다. 강도짓을 당한 피해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간격으로 인해 생겨난 죄의 간접적 피해를 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 고래싸움이라면, 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이웃들은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됩니다. 죄는 내가 고래로서 상

대하는 하나님 고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에 있는 일곱 편의 참회시 중의 하나입니다.
시기는 BC.991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에 참혹한 죄악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참회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장교 우리야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왕궁으로 데려와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이 알려져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다윗은 교활한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나가있던 우리야를 소환하여 아내와 동침하도록 특별 휴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충성심과 진실 된 동료의식과 군인정신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하자 다윗의 잔꾀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야의 신실함과 비교하여 다윗의 악함은 더욱 더 돋보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악함은 극에 달해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야 당사자에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치가 떨립니다. 우리야의 충성심과 성실함이 조금만 덜 해서 편지를 열어보았더라면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자신에게 전한 다윗을 천하에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우직하게도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편지에 기록된 대로 극렬한 전투에 임하게 하였다가 모든 군인들을 퇴각시키는 도중 우리야만 남겨두어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잔꾀는 이대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역사에 길이 남을 패륜적 죄악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경책을 전달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더 이상 악함을 주장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썩을 정도로 뼈아픈 참회를 하는 도중 지어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시에서 참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1~4절까지를 보면 피해자인 밧세바나 우리야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찍어 눌렀고, 우리야를 죽일 때의 그 악랄함은 기가 막힐 노릇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젖혀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 하였다'라는 말은 만약 우리야의 영이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하더라도 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셈인데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못했다고 여긴다면 우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심정이 드러나야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만 달게 받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도덕관념에서 보자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파렴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까?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밧세바나 우리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인 밧세바나 우리야를 또 다시 죽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야에게 태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 행한 씻을 수 없는 악한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 한 결과로서 나타난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단란한 가정에 극도로 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고래싸움에 밧세바와 우리야라는 새우등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고래싸움을 벌인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새우가 되어서 등이 터집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새우가 될 수 있고,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이 새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오래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조차 새우등이 터진 것입니다. 그 가해자가 진정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대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동안에 주변의 새우들의 등이 터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시끄럽고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유착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 그 결과 국민이 새우가 되어 등이 터지며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유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들도 국민에 앞서 하나님께 범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죗값이 치러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법대로 사회를 향해 최소한의 사죄를 하고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죗값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새도 거물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재판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재판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이든 반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서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참회하지 않으면 죗값으로 종신형을 언도받게 되더라도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계명을 범한 증거이자 결과가 나머지 계명들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기웃거리게 됩니까? 제1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

컫는 이유도 제1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시에서 1~2절에서만 '죄'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등을 돌리다'라는 뜻의 페솨(pesha)로 표현되었고, 두 번째 죄는 '구부러지다'라는 뜻의 아원(awon)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궤적이 직선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빗나가다'라는 뜻의 해타(chatta'ah)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와 사람을 향한 죄를 나누어 구분하려고 하지만 실상 죄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제1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 객관적으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신으로 대우하는 대상이 곧 다른 신이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신의 형태는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다른 신의 대표적 주자로서 언급하셨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똑같이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 대상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녀가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들어가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취직이 잘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자녀가 곧 신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자 강한 흡입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갔을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던 것을 보자 하나님께 등을 들리고 그 여인을 정조준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왕의 권력이 없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실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던 다윗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밧세바를 돌려보낸 후에도 처음처럼 밧세바를 아름답게 보았을지는 의문입니다만,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흡입력이 발휘 될 때에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 밧세바 사건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

다. 또한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야를 죽이는 또 다른 범죄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야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죄하고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며 얻은 밧세바에 대해 이후에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졌을 뿐입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후대에 왕이 되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었던 범죄자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왕으로 세운 다윗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책임을 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책임감의 문제를 넘어 참회는 우리야나 밧세바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으로의 밧세바를 섬김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하리라고 믿은 것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시작한 간음에서 죄악은 시작된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군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영적 간음의 체질은 태생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질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성전의 제사를 통해 마음을 상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그러한 체질이 억제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여서 만족하려는 이 체질은 죽을 때까지 지속 될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약을 중지하면 다시 혈압은 상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체질은 죽을 때까지 지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을 억제하지 않으면 내 이웃들의 새우등 터지는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자녀를 통해 만족하려 할 때에 자녀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되어 등이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우자를 통해 만족하려고 할 때에 배우자는 새우등 터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고래 두 마리가 싸우면 그 사이에 있는 새우들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살인을 비롯한 온갖 범죄가 세상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차라리 왕권이 없었다면 밧세바에 대한 마음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럴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능력이듯이 돈도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할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에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기어코 소유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죄는 더 커지고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린 인간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에게는 차라리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갈 바에는 죄를 제일 적게 짓기 위해서 아프다 죽는 편이 나을 정도입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새우로 만들어 괴롭히는 일을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19절에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라고 하니 헷갈립니다. 주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놓고, 기뻐하시는 제사와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 뇌물이 되어버린 제사입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두 뇌물이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하나님을 찾는 아원(awon)이라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는 뇌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대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양이나 소의 각을 뜹니다. 제물을 부위별로 절단하고 살을 저며서 번제단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밧세바로 유착되어 버린 마음을 상번제의 어린양을 떠올리면서 각을 떠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는 동물은 곧 내 마음이 형상화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며 유착된 마음을 조각 난 동물처럼 조각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돈과 결합되어 그 마음을 지키며 드리는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창에 찔리시던 그 모습을 내 마음에 오버랩해야 합니다. 자녀로 기뻐하려 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처럼 찢겨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모습은 세상과 연합한 내 마음이 되어야 할 상태가 형상화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등터지는 새우들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의 가족이 괴로운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인한 새우등 터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내게 잘못하거나 내가 어떤 자에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